

돌봄수요 느는데... 시교육청 '늘봄학교' 능력대응

늘봄학교 시행을 하반기로 당겨
광주시교육청, 부랴부랴 교원채용
23명 기간제 모집에 2명만 지원돼
작년 시범사업도 신청 안해 '질타'
시교육청 "과도기 단계 정착 노력"

광주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준비에 능력
대처 하면서 '행정력 부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늘봄학교 시행 시기가
올 하반기로 앞당겨졌지만 뒤늦게 준비
에 나섰으며 지난해 시범사업도 신청하
지 않아 비판받은 사실 역시 도마에 오르
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를 오는 2
월부터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정
규 수업 외 시간에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늘봄학교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은 맞벌이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받아 일부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었
다. 반면 늘봄학교는 올 하반기부터 초등
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
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5년에
시행하려 했으나 지난 24일 시행 시기를
앞당겨 오는 3월 전국 2000개 학교에 우

선 도입하고 2학기 전체 학교로 확대하겠
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늘
봄학교 시행에 부랴부랴 나섰다지만 어려움
을 겪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6일 2024 늘봄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모집 정원인 23명 중 2명만 지원됐다. 추
가 모집을 통해 충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달부터 준비한 뒤 진행해야 하는
데도 지원자가 없어 늘봄학교 시행에 차
질이 불가피하다.

당초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은데도 시교육청이 능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3년간 돌봄교실 이용을 원하는 학
부모들이 늘면서 300~400명의 대기번호
까지 이어지는 등 수요가 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돌봄교실 신청자 6560명 중 수용자 6097
명, 대기자 373명 △2022학년도 신청자
6774명 중 수용자 6159명, 대기자 469명
△2023학년도 신청자 6788명 중 수용자
6152명, 대기자 467명이다.

이 같은 돌봄교실의 치열한 경쟁률에
도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늘봄학교 시
범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아 비판을 받
았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 교
육문화위원회 의원들로부터 늘봄학교 시
범 운영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지적
당하자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들과
논의하며 늘봄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

는 게 우선"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뒤늦게 준비에 나서 돌봄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자녀를 둔 한 모
(41)씨는 "올해 돌봄교실에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학원을 급하
게 알아보고 있다. 당장 일을 그만둘까 고
민했지만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곧 운영

된다고 해서 당분간 맞벌이 상태를 유지
하기로 했다"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소식에 광주도 포함된 줄 알았지만 아직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곳을 보지 못했
다. 입학하자마자 아이를 센터나 학원으
로 가게 해야 할지 착잡하다"고 하소연했
다.

시교육청은 지금은 늘봄학교 정착을 위
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가 초등학
교 교사들 사이에서 업무 부담을 호소할
수 있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하고
있지만 기간제라는 조건상 채용이 쉽지
않다"며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루빨
리 늘봄학교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입춘방

입춘을 닮은 30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과 직원들이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등 입춘방을 쓰고 있다.

김양배 기자

3년 도주 끝에 붙잡힌 30대 성폭행범, 항소심도 실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3년간 도망친 지명
수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
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성주)
는 3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
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2년6개월
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손님을 성폭행 한 혐의
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방 손님들이 술에 취해 인
사불성이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
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약 3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녔다.

A씨는 지명수배자가 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

고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설
령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행위 내용, 도주 등
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처는 불가능하
다"며 "도주 이력 탓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합의가 의미가 없다.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순찰차 들이받은 후 경찰 폭행한 남성들 구속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
성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은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
해)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산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광
산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자신의 차를 쫓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10km 가량 달
아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
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광산
구 월곡동 주택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
어트리고, 오토바이 주인과 충돌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